

1

인문계열 논술고사 (오전)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사회과 : 통합사회, 한국지리
	핵심개념 및 용어	도시화, 인간 소외, 공간 불평등, 젠트리피케이션, 상호 연결 능력, 혁신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 (다)에 나타난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각각 분석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라)의 관점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가)

도시화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이 몰려든 도시는 인구 과밀을 해소하고자 고층 건물, 공동주택 등을 지어 공간 이용의 효율을 높였다. 또 반듯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산업, 주거, 상업 등 기능별로 구역을 나눈 새로운 산업단지나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도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은 풍요와 편익을 누리는 한편,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경험하게 되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각자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인간관계가 확산되었고, 이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 인구 과밀에 따른 주거 불안, 교통체증, 범죄 증가, 환경오염 등이 심각해졌다. 그런가 하면 개별적인 문제들이 서로 얽혀 지역 간 혹은 계층 간 격차를 유발하면서 사회 및 공간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도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실천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제시문 (나)

24시간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 떨어진다. 편의점의 점원은 손님이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넨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먼저 말을 걸거나 시선을 건네지 않는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언제라도 부담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 둘러볼 수 있다. 실제로 점원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다.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점원의 말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점원의 입장에서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을 응대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편의점은 어두운 도시에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환한 조명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그러나 편의점의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거리를 밝혀주고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있다.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 안심된다. 일본의 어떤 편의점은 간판 옆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비상시에 사이렌을 울릴 수 있게 한다. 위험에 처하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편의점에 달려가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제시문 (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노후한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부가 늘어나고 이전보다 상인과 거주민 중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된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의 여러 대도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골목 상권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렇다. 도심 속 어느 후미진 골목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젊은 예술가들과 새로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 골목은 특색 있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매력적인 장소가 된다. 하지만 골목이 뜨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임대료가 오른다.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이곳을 찾은 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은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대신 그 자리에 고가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지만, 골목의 개성이 없어지고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도 한다.

주거의 면에서는 대중교통의 요지에 고소득자들이 모이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본격화된다. 부유한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게 될수록 그 지역은 유행하는 상점, 카페, 레스토랑이 많아지고, 학교와 공원도 새로 들어선다. 이들은 도심으로 돌아옴으로써 통근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 생활이 제공하는 더 나은 편의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한 특별한 접근성을 누린다. 반면 저소득자들은 주로 주거비 상승 때문에 도심 밖으로 밀려난다. 도심이 임금 상승과 경제적 계층 이동에 도움을 주는 더 나은 구직 기회와 더 좋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제시문 (라)

도시는 왜 성공하는가? 도시가 미래에도 계속해서 번성할 것인가? 도시의 내구력은 인간이 가진 사회적 성격을 반영한다. 우리가 가진 상호 연결 능력은 우리 인간 종(種)을 정의하는 중

요한 특징이다. 우리는 집단으로 사냥하고 사냥한 동물들을 공유하면서 인간이란 종으로 성장했다.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도시 생활의 원시적 형태인 집단적 삶은 “인간다운 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라고 주장했다. 인류의 본질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는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도시는 관찰, 청취, 학습을 더 쉽게 해주며, 엄청난 혁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도시의 혼잡성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얻는 새로운 정보의 지속적 흐름을 창조한다. 인터넷은 훌륭한 도구이긴 하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인도의 벵갈루루에 모여 있는 IT 업계 종사자들이 보여주듯이 인터넷은 대면 접촉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결합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 우리 인간은 동료 인간들이 내보내는 청각, 시각, 후각 단서들을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이다.

3. 출제 의도

<문제1>은 도시의 발전, 도시화가 가져온 변화에 대하여 단선적이거나 평면적인 이해를 벗어나 그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의도한다. 이런 점에서 문제는 두 가지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충분히 접하였을 ‘도시화’의 특징과 양면성을 제시문 (가)에서 일반화된 진술로 제시하고, 이를 제시문 (나)와 (다)에서 각각 소개하는 ‘24시간 편의점’과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교과서에서 ‘도시’의 특징으로 다루지 않은, 비교적 최근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문 (라)에서 제시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이 비판적 읽기는 첫 번째 과제에서 분석한 바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라)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서술된 도시화 관련 핵심어들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지문이다. 문제 해결의 시작을 교과 과정을 통해 익숙하게 알고 있을 만한 지점에서 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실린 김찬호의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에서 발췌 및 재구성한 지문으로 일상 경험에 보다 밀착된 도시화의 사례로 편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리처드 플로리다의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와 김현아, 서정렬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한국에서 주로 논의된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주거지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확장, 심화하고, 도시화의 양면성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문 (라)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 제10장 「평평한 세계, 점점 높아지는 도시」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인 상호 연결성을 간직한 도시는 마침내 혁신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저자의 주장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한 비판적 읽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정립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 국어		
	과목명 : 국어		
	성취 기준 1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관련 제시문 (가), (나), (다), (라)
	과목명 : 화법과 작문		
	성취 기준 2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관련 제시문 (가), (나), (다), (라)
	과목명 : 독서		
	성취 기준 3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관련 제시문 (가), (나), (다), (라)
	성취 기준 4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성취 기준 5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2. 교과명 : 사회		
	과목명 : 통합사회		
	성취 기준 6	[10통사03-01]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관련 제시문 (가), (나), (다), (라)
	과목명 : 한국지리		
	성취 기준 7	[12한지04-02]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및 내부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도시권의 형성 및 확대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관련 제시문 (나)
과목명 : 한국지리			
성취 기준 8	[12한지04-03] 주요 대도시를 사례로 도시 계획과 재개발 과정이 도시 경관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관련 제시문 (다)	
과목명 : 한국지리			
성취 기준 9	[12한지04-04] 지역 개발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공간 및 환경 불평등과 지역 갈등 문제를 파악하고, 국토 개발 과정이 우리 국토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관련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18	70-79	제시문 (가)	○
(고등학교)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18	74-81	제시문 (가)	○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164-169	제시문 (나)	○
(고등학교) 한국지리	유성종 외	비상	2020	108	제시문 (다)	○

2)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젠트리피케이션	김현아·서정렬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6	24-27	제시문 (다)	○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안종희 옮김)	매일경제신문사	2017	104-114	제시문 (다)	○
도시의 승리	에드워드 글레이저 (이진원 옮김)	해냄	2011	435-437, 470	제시문 (라)	○

5. 문항 해설

<문제1>은 두 가지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시문 (가)에서 일반화된 진술로 설명하고 있는 ‘도시화’의 특징과 양면성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들 즉, ‘24시간 편의점’과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가 ‘도시’의 특성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는 관점에 대해 그 의의와 한계를 서술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가 ‘도시화’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글이다. 따라서 이 문항은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그 사례들을 분석해 보는 과제이다. 제시문 (나), (다)에서 다루는 ‘24시간 편의점’이나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고등학교 수업에서도 다루어지는 소재이므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 제시문 (나), (다)를 분석할 때, ‘24시간 편의점’,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서술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는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을 서술해야 한다는 것, 즉 사례를 분석하여 일반화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사항임을 유의해야 한다.

제시문 (라)는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도시’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혁신에 대해 다루는 이 지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을 보다 최근의 사회상에 맞추어 발전시킨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시문 (라)의 관점에 대해 그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는 과제는 ‘비판적 읽기’를 요구하는데,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필자의 견해가 가진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문항은 앞서 ‘도시화’의 양면성을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삼아 제시문 (라)의 관점이 ‘도시화’의 긍정적 양상을 강화하고 부정적 양상을 약화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서술해야 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중 ‘생활 공간과 사회’, ‘사회 정의와 불평등’의 단원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도시화 관련 핵심어들을 이용하여 재구성된 지문이다. 이는 도시와 도시화의 문제점에 대한 일반 진술이다. 학생들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사례가 드러내는 구체적 면모들을 문제가 요구하는 긍정적, 부정적 양상으로 분석하는 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실린 김찬호의 ‘편의점, 욕망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에서 발췌, 재구성한 지문이다. 편의점에서 도시인들은 시간이나 인간관계에 구애됨 없이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나 편의점이 판매라는 본래의 기능에서 나아가 도시의 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하는 점을 근거로 편리나 풍요, 쾌적 등 도시화의 긍정적 양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점원이 표준화된 손님 응대 방식을 따른 결과 편의점에서의 인간관계는 ‘무관심’의 배려로 포착되었다. 이 자체는 편의나 효율이라는 긍정적 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이런 형식적 인간관계가 인간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부정적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다)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다룬다. 이 글은 리처드 플로리다의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와 김현아, 서정렬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재구성한 것이다. 제시문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우리나라의 골목 상권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와 함께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거지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확장, 심화하고, 도시화의 양면성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제시문의 두 번째 문단인 골목 상권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에서는 낙후한 동네가 ‘뜨는 골목’으로 바뀌면서 경제적, 문화적 활기를 띠다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과 개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소개하였고, 제시문의 세 번째 문단인 주거지 중심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안 대중교통의

요지로 중산층이 모여들어 구도심이 재개발되는 한편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을 소개하였다. 이 두 가지 예시는 공통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구도심의 재개발과 재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공간 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를 유발함으로써 특정 공간 또는 특정 계층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제시문 (라)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 제10장 「평평한 세계, 점점 높아지는 도시」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글레이저는 이 책에서 ‘도시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라 주장하며, 도시화에 따른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어떻게 번성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은 제시문에서 도시가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인 상호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 주고, 학습을 통한 혁신을 쉽게 만들어 준다는 저자의 관점을 읽어낸 후, 이러한 관점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해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p>※ 문제 1은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6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30점을 배점한다.</p> <p>■ 기본 평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의 요구를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로 분량을 채우거나, 합당한 근거의 뒷받침 없이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견해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에 포함된 구절을 따옴표 등의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답안을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쓸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답안은 서론과 결론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이 요구하는 사항 전부를 본론에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문항의 요구사항 중 일부로 서론 또는 결론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5.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p>■ 문항 평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의 두 가지 요구사항인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나) ‘24시간 편의점’과 (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나타난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각각 분석하는 것에 40%, 분석 내용을 토대로 (라)의 관점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서술하는 것에 40%를 배점한다.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20%를 배점한다. 2.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문제의 요구사항 	40점

은 '24시간 편의점'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분석하는 것임을 주의하여 채점한다. ② 제시문 (가)에 나타난 '도시화' 관련 핵심어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는지 확인한다. 제시문 (가)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도입하였다면 감점할 수 있다. ③ 제시문 (나)와 (다)에서 각각 긍정적 양상과 부정적 양상 모두를 기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④ 긍정적 양상과 부정적 양상에 대한 분석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채점 기준 및 채점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총 배점 40점)

구분		채점 기준	
‘도시화’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의 분석		① ‘24시 편의점’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부정적 양상을 기술한 경우, 20점을 감점함.	
		② 제시문 (가)에 언급된 내용에서 벗어나는 경우, 해당 서술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③, ④ 제시문 (나),(다)에 대해 긍정적인 양상과 부정적인 양상을 모두 기술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했는지는 아래의 ‘채점 요소의 예’를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함. 각 항목에서 한 가지 이상이 논리적으로 서술되면 점수를 부여함.	
		채점 요소의 예	배점
제시문 (나) ‘24시 편의점’	긍정적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언제라도 부담 없이’ → ‘편리’ • 편의점에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 ‘소비의 중심지’, ‘풍요’ • ‘표준화’ 되어 있는 손님 응대 → ‘형식적인 인간관계’, ‘업무처리 목적’, ‘편리’, ‘효율’ 	10
	부정적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광등’, ‘비상시 사이렌’ → ‘범죄 증가’ • ‘표준화’ 되어 있는 손님 응대 → ‘형식적인 인간관계’, ‘무관심’, ‘인간 소외’ 	10
제시문 (다) ‘젠트리피케이션’	긍정적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한 동네의 재개발’, ‘ → ‘편리’, ‘쾌적’ • ‘특색있고 다양한 볼거리’, ‘매력적인 장소’, ‘유행하는 상점, 카페, 레스토랑’, ‘학교와 공원’, ‘더 나은 편의시설’, ‘다양한 문화시설’ → ‘풍요’, ‘쾌적’ 	10
	부정적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이 ~ 옮겨 간다’, ‘저소득자들이 ~ 밀려 난다’ → ‘계층 간 격차’ • ‘후미진 골목 ↔ 뜨는 골목’, ‘도심, 대중교통 요지 ↔ 외곽’ → ‘공간 불평등’ 	10

3. 문제의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우선 제시문 (라)의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② 문제의 요구사항은 제시문 (라)의 관점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다. 의의나 한계 중 어느 하나를 서술하지 않았거나 제시문들의 내용을 토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감점한다. ③ 제시문 (라)에는 저자의 관점이 지니는 한계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다. 이때 제시문 (나), (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타당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면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나), (다)와 무관하게 서술하였다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총 배점 40점)

구분	채점 기준	
제시문 (라) 관점의 의의와 한계	① 제시문 (라)의 관점을 요약하기만 하고, 그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밝혀 쓰지 못한 경우 감점함.	
	② 의의와 한계를 모두 쓰지 않은 경우 감점함. 또한 의의와 한계 중 어느 하나라도 제시문들의 내용과 무관한 경우 감점함.	
	③ 의의와 한계를 모두 쓰고, 각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였는지, 통찰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의의와 한계를 발견하였는지,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등에 따라 가점함.	
	채점 요소의 예	배점
관점 파악의 정확성	제시문 (라)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도시는 상호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 주고, 학습을 통한 혁신을 쉽게 만들어 준다.	10
의의의 서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진술로 의의를 서술할 수 있음. • 이 관점은 ‘도시의 본질적 특성에 주목하게 해 준다.’ • 이 관점은 ‘도시의 혼잡성의 긍정적인 면을 알려준다.’ • 이 관점은 ‘미래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10
한계의 서술	제시문 (나), (다)에 나타난 ‘도시화’의 부정적인 양상과 연관 지어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음. • 그저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언제나 이상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형식적 인간관계’는 ‘무관심’과 ‘인간 소외’를 일으키기도 한다. •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연결되려 하는 경우, 불평등이나 차별이 일어나기도 한다.	10
논리적 타당성 및 창의성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여 가점할 수 있음. • 각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였는지 • 통찰력, 창의력을 발휘하여 의의와 한계를 발견하였는지 •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등.	10
4.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 면에서는 답안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답안의 각 단락과 내용이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좋고, 서론이나 결론을 통해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서술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한 경우 감점할 수 있다. 문단 구분을 적절히 하지 않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비문이 많은 글도 감점할 수 있다. (총 배점 20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도시화는 도시가 발전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도시화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다.

(나)에서 24시간 편의점은 도시의 곳곳에 존재하고 사람들이 어느 때나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소비의 중심지인 도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도시화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편의점에서 점원과 손님 사이의 의사소통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처럼 도시에서는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확산'되는데, 이것은 도시에서의 일상이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줄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해져서 '인간 소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노후한 동네가 재개발'되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공간이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도시화의 긍정적 양상을 보여준다. 도시의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하지만 도시 안의 모든 공간이 동시에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은 발전하지만 다른 공간은 그렇지 못해 공간 불평등이 생겨나고 이것이 계층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은 부정적인 면이다.

(라)는 도시가 사람들을 연결해서 엄청난 혁신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본다. 이 관점은 도시가 성공하고 미래에도 계속 번성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고 연결해 주는 도시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하지만 편의점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 사이의 연결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연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소통 노력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인문계열 논술고사 (오전)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 화법과 작문, 독서 도덕과 : 생활과 윤리 사회과 :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국가의 권리, 시민의 권리, 점진적 접근방법, 자율성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전체의 규율과 개인의 자율 간의 합리적 관계에 관한 제시문 (마)의 주장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바), (사), (아)의 내용을 각각 분석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마)

플라톤의 강령에는 위험해 보이는 유토피아적 접근법이 있는데, 이는 내가 합리적이라고 보는 점진적 접근법과 반대된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에 따르면 합리적 행위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이나 이상국가가 정해져야만 한다. 이는 권력이 집중된 통치를 요구하며 그 결과 독재로 흘러갈 것이다. 비판을 불허하는 독재자는 자신의 행위 결과가 선량한 의도와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독재자의 당대에 실현하기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과업을 후계자가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동안 국민이 감수한 고난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이상에 대한 플라톤적 신념뿐이다. 이는 돌맹이 하나도 그대로 두지 않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비타협적 급진주의, 탐미주의, 완전주의로서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낭만주의이다. 나는 이 점에 항의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설계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만들 뿐이다. 이와 달리 점진적 사회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이란 요원한 일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제도적 방법이란 없다. 모든 인간의 요구는 불행을 피할 수 있다면 불행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점진적 공학자는 최대의 궁극적 선을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사회 최대의 악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이상사회를 논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공학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이성 대신에 폭력을 초래하

고 말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방법은 반복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과학적 자세를 가진다면 합리적인 타협에 도달할 수 있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방법을 통한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

제시문 (바)

새뮤얼슨은 제한 없는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프리드먼을 반대하면서, “사적 이윤만 추구해서는 우리의 강과 대기에 발암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단순히 이기심만으로는 사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사람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개인적 권한 중 일부를 내려놓음으로써 맺어진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호등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한다. 하지만 봄비는 도로에 신호등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울까? 잘 설계된 정지 신호 앞에서 나와 다른 운전자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누리는 자유의 산술적 총합은 커질까 아니면 작아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지 신호는 누군가에게는 출발 신호다.”

하지만 새뮤얼슨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는 편이 좋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정부가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정부 개입을 무조건 옹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시문 (사)

실패한 접착제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포스트잇’을 개발한 A사(社)는 대표적인 아이디어 기업들 중 하나이다. 초기 경영진이었던 B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심하게 비판하는 경영진의 행위는 종업원의 자발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자율적 혁신을 강조하는 A사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A사에는 1년 내 개발한 제품으로 매출의 10%를 올린다는 ‘10% 원칙’과 4년 내 출시한 제품으로 매출의 30%를 올린다는 ‘30% 원칙’이 있다. 이 원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의 하나는 직원들이 업무시간의 15%를 자유롭게 개인의 아이디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5% 원칙’이다. 직원들은 그 시간 동안 구상하는 내용에 대해 그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강요의 성격은 없어서, 15%의 시간을 개인의 아이디어에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시문 (아)

정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려고 한다. 한 예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수제 쿠키를 생산하는 C사(社)는 2001년 설립 후 2007년에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다. C사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쿠키를 만들고 있다. C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쿠키는 대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에 있어 불리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주는 신뢰성과 취약 계층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C사 제품의 공공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홈쇼핑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수수료를 감면해줌으로써 C사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1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45명의 발달장애인이 C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급여를 제공하였고, 10년 이상 장기근속 장애인의 비율도 절반이 넘는다. 이로써 보다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가 가능해졌다.

*사회적 기업: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3. 출제 의도

문제 2의 출제 의도는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합적 관점’, ‘합리적인 선택’, ‘민주주의’ 등에 관한 내용과 <생활과 윤리>에서 배우는 ‘국가와 시민의 윤리’, ‘소통과 담론의 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마)의 주장, 즉 전체적 규율이 개인적 자율을 줄이거나 말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개인적 자율을 존중하고 확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바), (사), (아)의 내용을 일관되게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다. 제시문 (바)는 <통합사회>와 <경제>에서 배우는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 제시문 (사)는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기업의 자율적 혁신’, 제시문 (아)는 <통합사회>에서 소개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내용으로, 수험생으로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분야의 논쟁이나 사례가 모두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율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관한 실천적 고민을 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하고, 나아가 제시문 (바), (사), (아)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사태가 제시문 (마)에 바탕이 되는 논리에 부합한다는 점, 다시 말해, 제시문 (바), (사), (아)의 논쟁이나 사례가 제시문 (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하는바, 이 점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 국어	
	과목명 : 국어	
	성취 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읽는다.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관련
		제시문 (마),(바), (사),(아)
	과목명 : 독서	
	성취 기준 2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관련
		제시문 (마)
		제시문 (마),(바), (사),(아)
과목명 : 화법과 작문		
성취 기준 3	[12화작01-01]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 한다.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관련	
	제시문 (마),(바), (사),(아)	
2. 교과명 : 도덕		
과목명 : 생활과 윤리		
성취 기준 4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마)	

3. 교과명 : 사회		
과목명 :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5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제시문 (마)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제시문 (바)
과목명 : 경제		관련
성취 기준 6	[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제시문 (바),(사), (아)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바)
과목명 :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7	[12정법01-01]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제시문 (마)
과목명 :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8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아)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8	30-37	제시문 (마)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인	미래엔	2018	32-40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9인	비상교육	2018	103-112		○
(고등학교) 정치와 법	모경환 외 5인	금성출판사	2019	78-85		○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8	142-145	제시문 (바)	○
(고등학교) 경제	박형준 외 5인	천재교육	2019	30-45		○

(고등학교) 경제	김진영 외 4인	미래엔	2019	68-85		○
(고등학교) 경제	허수미 외 6인	지학사	2019	78-89		○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8	142-145	제시문 (사)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9인	비상교육	2018	82-87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10인	천재교과서	2018	88-92		○
(고등학교)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출판	2018	176-185, 242-243, 264-267, 283-284	제시문 (아)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구정화 외 4인	천재교육	2018	142-145		○
(고등학교) 사회·문화	손영찬 외 4인	미래엔	2018	148-150		○

2)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열린사회와 적들	칼 포퍼 이한구(울김)	민음사	2006	263-278	제시문 (마)	○
새뮤얼슨 vs. 프리드먼	니컬러스 압솟 이가영(울김)	부키	2021	149-162	제시문 (바)	○
LG Business Insight	이병주 책임 연구원	LG 경영연구원	2009	15-17	제시문 (사)	○
세상을 바꾼 발명품: 실패한 접착제가 혁신을 낳다 ¹⁾	이성규 객원기자	사이언스타임즈	2016	-	제시문 (사)	○
실패한 제품에서 세계적 아이디어 기업으로 성장 ²⁾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	2018	-	제시문 (사)	○
2022 사회적경제 우수사례집: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전과 성과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지원팀	2022	18-19	제시문 (아)	○
2022 사회적경제 우수사례집: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전과 성과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사회적경제지원팀	2022	26-31		○

1) <http://www.sciencetimes.co.kr/news/%ec%8b%a4%ed%8c%a8%ed%95%9c-%ec%a0%91%ec%b0%a9%ec%a0%9c%ea%b0%80-%ed%98%81%ec%8b%a0%ec%9d%84-%eb%82%b3%eb%8b%a4/?cat=29>

2)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644>

5. 문항 해설

칼 포퍼가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이행을 주장하면서 그 전제로서 논증한 것이 바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칼 포퍼의 논리는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철학을 당시 개인의 자율에 방점이 있는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전체주의적 내지는 보수주의적 반동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한 결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와 동서 냉전의 원인이 되는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칼 포퍼의 관점에서 보면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자연스러운 발전인데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급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을 계기로 다시 ‘닫힌 사회’로 돌아가려는 사회적 힘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에서 시작되어 헤겔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는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을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것이 칼 포퍼의 핵심적 주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이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의 단순한 반대편이 아니라 이를 발전적으로 극복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다. 다시 말해,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개입을 논리적으로 긍정하는 점에서 자유방임주의와 차원을 달리한다.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은 유토피아적 사회공학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개입에 관한 방법론의 차원으로, 단 한 번의 치밀한 의지의 실현을 통해서 세상의 그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거대한 기획이 그 반이성적인 본성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데 그 방점이 있다.

이러한 칼 포퍼의 주장은 지금도 상당히 타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시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결코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의 개입이 시장과 사회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결코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은 굳이 이론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최근 ‘자율 규제’에 대한 관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 시장과 사회의 자율과 창의가 왜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의 개입은 어떠한가에 관한 수험생의 이해도를 서로 상황이 다른 다양한 실천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의 사례는 국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율에 관한 새뮤얼슨과 프리드먼 사이 입장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둘째의 사례는 기업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만들어진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제품이 개발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셋째의 사례는 비교적 최근 관심사가 되었고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가 국가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도리어 시장의 자율성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수험생으로서는 우선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이 유토피아적 사회공학과 대비가 되지만 결코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에 국가적 개입이나 조직적 규율의 방법론 차원에서 시장과 사회의 자율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를 유토피

아직 사회공학의 문제점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례별로 국가의 개입이나 조직의 규율이 시장이나 사회의 자율과 갈등하는 상황을 핵심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이 가지는 실천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	<p>■ 기본 평가 기준</p> <p>※ 문제 2는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는 30점, 캠퍼스자율전공 지원자에게는 45점, 법학부 지원자에게는 60점을 배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p>■ 문항 평가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이 (마)에 제시된 규율과 자율 간의 합리적 관계를 파악하여 정리한 부분에 20%, (바), (사), (아)에 나타난 사례를 분석하는 부분에 각각 20%, 그리고 서론과 결론 부분에 각각 5%,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채점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p>※ 아래에서 제시된 답안의 형식과 달리, 서론과 결론을 통합해서 설명한 다음에 (마), (바), (사), (아)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답안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론+결론=10점】, 서론과 결론을 (마)에 대한 설명에 통합해서 정리한 다음에 (바), (사), (아)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답안이 있을 수도 있는바 【(마)= 20점+10점】, 답안의 형식과 상관없이 내용에 빠짐이 없고 논리가 일관된다면 좋은 점수를 부여할 것</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59 1724 502 1787">구분</th> <th data-bbox="502 1724 1300 1787">평가 기준</th> <th data-bbox="1300 1724 1396 1787">배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9 1787 502 2004">서론</td> <td data-bbox="502 1787 1300 2004"> - 전체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 국가의 개입이나 조직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리적 주장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례들을 분석함. - 합리성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관점: 이상주의적 합리성 관점이 초래하는 독선과 폭력의 문제와 그 대안으로서 요구되는 과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td> <td data-bbox="1300 1787 1396 2004">5</td> </tr> </tbody> </table>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서론	- 전체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 국가의 개입이나 조직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리적 주장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례들을 분석함. - 합리성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관점: 이상주의적 합리성 관점이 초래하는 독선과 폭력의 문제와 그 대안으로서 요구되는 과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5
구분	평가 기준	배점					
서론	- 전체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 국가의 개입이나 조직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리적 주장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례들을 분석함. - 합리성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관점: 이상주의적 합리성 관점이 초래하는 독선과 폭력의 문제와 그 대안으로서 요구되는 과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5					

	<p>점진주의적 합리성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례들을 분석함.</p>	
<p>제시문 (마)에 대한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토피아적 접근방법 : 하나의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이상에 대한 플라톤적 신념은 독선과 폭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초래함. - 점진적 접근방법: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고 인간이 불행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사회공학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이루어야 함. - 합리성에 관한 관점: 이상주의적 합리성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 요구되는 과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점진주의적 합리성 관점이 필요함을 명시 <p>※ 점진적 접근방법을 규율 없이 자율만 강조한 자유방임으로 해석하면 주요 감점 요인임.</p>	20
<p>제시문 (바)에 대한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적 정의: 새뮤얼슨은 개인(개체)의 더 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전체)의 협력이나 강제가 필요하다고 봄. 시장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 정부의 개입이 허용되어야 하지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10점) -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의 간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 관점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나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와는 차별성을 가짐.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모두 허용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사회공학에 부합함. (10점) <p>※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율의 관계에서 개인적 자율의 측면을 놓치면 감점 요인이고, 잘 설명하면 가점 요인임.</p>	20
<p>제시문 (사)에 대한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적 정의: A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풍토와 ‘15% 원칙’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10점) - 분석한 결과: A사라는 전체(조직)와 개인(구성원) 간에는 ‘15% 원칙’이라는 ‘규율’이 존재하지만, 이 규율의 운영에 있어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학습하려는 과학적인 자세를 보임. 따라서 제시문(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시행착오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사회공학에 부합함. (10점) <p>※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율의 관계에서 전체적 규율의 측면을 놓치면 감점 요인이고, 잘 설명하면 가점 요인임.</p>	20
<p>제시문 (아)에 대한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적 정의: C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10점) - 분석한 결과: ‘국가’라는 전체와 사회적 기업인 C사는 개체 간의 관계임. C사는 정부의 개입(즉,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실현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나, 오히려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이는 타인과의 합리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 타협적 노력이라 할 수 있고, 	20

	<p>이에 더해, 민간은 자생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적 회복을 추구하고 있음. 따라서 점진적 사회공학에 부합함. (10점)</p> <p>※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율의 관계에서 개인적 자율(사회적 기업의 자율적 고용)의 측면을 놓치면 감점 요인이고, 잘 설명하면 가점 요인임.</p>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자율을 존중하는 전체적 규율: 국가의 개입이나 조직의 규율은 필요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이나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바, 위 사례들은 이러한 주장에 논리적으로 부합함. - 이상적 독선이 아닌 점진적 타협: 무엇이 합리적인지에 관하여는 이상적이고 독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타협적인 접근이 필요한바, 위 사례들은 이러한 주장에 논리적으로 부합함. 	5
논리적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전체의 구성이 매끄러움. - 글 안의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됨. 	10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유토피아적 사회공학과 점진주의적 사회공학 모두 국가의 개입이나 조직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전체적 규율과 개인적 자율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바, 제시문 (마)는 이상주의적 합리성 관점이 초래하는 독선과 폭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과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하는 점진주의적 합리성 관점을 견지하여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무엇이 최선인지에 관한 합리적인 타협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 (사), (아)는 규율은 필요하지만,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에 부합하는 사례들이다. (바)의 새뮤얼슨은 개인의 더 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의 강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자유방임주의와는 그 전제가 다르며, 국가가 간섭하는 목적이 개인의 자유나 이익 추구라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을 배척한다. (사)의 A사는 구성원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15% 원칙’이라는 규율에 따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바, 개인의 자율을 강조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는 점에서 점진주의적 사회공학으로 볼 수 있다. (아)의 C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다수의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어떤 점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다른 점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나아가 여러 경제주체의 자발적 협력을 끌어내는 점에서 타협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 증진이라는 공동체의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